

# 프랑스, '꼴레랑스'와 '화이부동'의 나라

왜 프랑스는 한국의 거울이 됐는가...

미국에 대한 '안티 테제'로 부상한 면 있어

배명복 | <중앙일보> 논설위원

“프랑스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진다. 그만큼 복잡다단한 사회다. 프랑스 사회를 관찰할 때 가장 유의할 점도 단순화의 오류다. 프랑스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무질서는 보는 이를 당황하게 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정교하게 통제하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다. 그들은 다름을 배려할 줄 안다. 하지만 다름을 용인하면서도 자신을 지켜나가는 게 프랑스인이다.”

단지 프랑스에 일정 기간 살았다는 이유로 프랑스에 대해 뭔가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나는 되도록 피하려고 노력해왔다. 약간의 의무감 섞인 호기심을 드러내며 “프랑스라는 나라 어때?”라는 뜬금없는 질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참으로 곤혹스런 일이다. 나의 대답에 그다지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묻지 않으면 도리가 아닐 것 같아 물어준다는 투의 접근은 나를 질리게 하고 때로 짜증나게 했다.

## 무질서한 나라라는 첫 인상

인상을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체험과 관찰, 공부를 통해 전혀 다른 사회와 문화에 대한 나름의 시각과 논리를 체계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진다. 7년 반 동안 프랑스에 살면서 나 스스로 그런 경험을 뼈저리게 했기 때문에 귀국 후 ‘프랑스 전문가’인 양 행세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두렵기조차 했다. 하지만 직업의 강제성이 제공하는 최면 효과에 의지해 만용을 부릴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면 어김없이 단순화의 함정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인상과 이해는 별개라고 말했지만 인상은 때로 이해의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무질서였다. 프랑스혁

명 2백주년을 기념하는 열기가 날씨만큼이나 뜨겁던 1989년 7월 특파원으로 파리에 부임했다. 샤를 드골공항에 내려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아무리 둘러봐도 재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지나가는 공항직원에게 물었더니 ‘별걸 다 묻는다’는 표정이었다. 손가락으로 공항바닥을 가리키며 그는 “빠르테르!”(par terre)라 말했고 그제서야 나는 프랑스에서는 공항바닥이 재떨이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반질반질한 바닥에 구둣발로 담배꽂이를 마구 비벼끄는 ‘통쾌함’(?)을 맛보면서도 속으로는 혀를 찼다.

공항 실내가 그 정도니 거리는 말할 것도 없었다. 담배꽂이는 으레 아무데다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데 있고 거리는 휴지조각과 개들이 남긴 오물로 지저분했다. 과속과 끼어들기를 서슴지 않는 운전자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고 보행자들은 아예 교통신호를 무시했다. 지나가는 차만 없으면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개의치 않고 아무데서나 길을 건넜다.

아무리 파업이 국민적 스포츠라는 나라라지만 걸핏하면 파업이었다. 교사들이 파업하면 학생들이 휴업하고, 지하철 운전기사가 파업하면 이번에는 운전공들 파업 때문에 신문이 만나와 개인적으로 곤란을 겪은 일도 있다. 최근에는 국선번호인 수입료를 올려달라며 변호사들이 파업

을 하는 바람에 사법부가 마비되기도 했다. 그러고도 나라가 굴러가는 게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첫인상으로 자리잡은 무질서는 내가 프랑스 사회를 이해하는 화두가 됐다. “과연 이런 무질서한 나라가 ‘한국의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이 ‘공안’(公案)을 붙들고 나름대로 프랑스를 알고 이해하려고 했다.

## 사회질서보다 개인적 자유가 앞서서 사회

내가 단지 관광객으로 파리를 스쳐지나가는 입장이었다면 프랑스는 무질서하고 지저분하기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사회로 각인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프랑스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그렇지 않다. 겉으로는 무질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치밀하고 엄격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사회가 프랑스다. 물론 아직도 100% 확신은 없다.

일견 프랑스 사회가 무질서해 보이는 것은 제멋대로 사는 자유, 다시 말해 ‘레세 페르, 레세 빠세’(laisser-faire, laisser-passer)가 통용되는 사회적 분위기 탓이라고 본다. 그 바탕에는 사소한 문제로 사람을 속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력을 억압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 그 판단은 정치 엘리트들의 몫이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나라가 프랑스다. 대로를 벌거벗고 활보하든, 공원 잔디밭에 들어가 낮잠을 자든, 거리에서 보란 듯이 낮뜨거운 애정표현을 해도 누구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다.



프랑스는 관용과 화이부동의 나라다. 전자는 '다름'과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성숙한 문화의식이고 후자는 서로 섞여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주체성이다. 사진은 68혁명 당시 사회개혁을 외치며 거리에 뛰쳐나온 프랑스 시민들의 행렬. (창작과비평사 사진제공)

《논어》〈위정(爲政)〉편에 보면 '도지이정(道之以政) 제지이형(齊之以刑) 민면이무치(民免而無恥)'란 구절이 나온다. '법규로 다스리고 형벌로 통치하면 백성들이 규정과 형벌을 피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치와 예의가 없어진다'는 대충 그런 뜻이리라. 엉뚱한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사회를 볼 때 《논어》의 이 구절을 떠올리게 된다. 도로 무단횡단 한번 하면 벌금 5천원, 쓰레기 무단투기 1회에 5만원, 미풍양속 저해사범에 구류 3일... 예컨대 이런 식으로 인간을 옴아매서 질서를 유지할 경우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떨까. 공권력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곳에서는 자제하겠지만 단속의 눈길이 없는 곳에서는 무질서가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인간을 구속하는 법과 규율은 적을수록 좋다. 법과 규범은 최소한으로 하되 일단 정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철저하며 혹독하게 집행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 명시적이든 아니든 금제와 규제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들이 과연 공정하게 다 지켜지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차별적 적용은 없는가. 이런 질문에서 우리 사회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위아래를 무시하고 도덕불감증이 판치고 있는 건 아닐까.

자유로운 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다. 내 자유가 소중한 만큼 남의 자유도 소중한 줄 알고, 내 목소리가 있으면 남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안다. 또 남을 배려할 줄도 안다. 홍세화씨가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창작과비평사)에서 말하고자 한 키워드는 프랑스 사회의 '폴레랑스'였다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다양한 색깔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폴레랑스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이 차별의 이유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폴레랑스다. 거기서 창의가 꽃필 수 있고, 문학과 예술, 철학이 발전할 수 있다.

#### 관용정신과 주체적 태도 본받아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어디 프랑스만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이라는 나라치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다. 미국이 그렇고 영국과 독일이 그렇다. 이웃나라 일본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미국도 일본도, 독일이나 영국도 아닌, 프랑스가 '한국의 거울'로 인식되고 있다면 그것은 왜인가. 혹시 우리 스스로가 만든 환상은 아닐까.

나는 그 대답을 20세기 역사에서 찾는다. 우리와 악연이 있는 일본은 일단 논외로 치자. 독일은 1·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다. 영국과 미국은 독일에 맞서 승리를 거둔 전승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는 미국이 주도해왔고 냉전이 끝나면서 유일 초강대국 미국은 절대적 주도권을 전지구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경제·문화적 영향력과 파급력은 한국에서도 두려울 정도로 압도적이다. 우리에게 미국에 대한 '안티 테제'는 없는가. 있다면 그것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아돌프 히틀러와 홀로코스트로 기억되는 독일은 분명 선진문명국이지만 20세기 후반 내내 어두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 못했고 더구나 둘로 쪼개져 있었다. '늘은 제국' 영국은 미국의 일부로 인식돼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왕권에 대한 시민권의 승리를 선언한 프랑스 대혁명의 나라,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의 나라, 그렇지만 보불전쟁에서 패하고, 2차대전에서 독일에 점령됐던 나라가 프랑스다. 2차대전 이후 '프랑스의 영광' 재현을 내세운 드골주의의 정치적 기치가 '명예로운 피해자'란 이미지와 맞물리면서 우리는 프랑스에 대해 환상을 갖게 된 것은 아닐까.

그 배경에는 언론 탓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유럽에 특파원을 내보내면서 국내 언론은 전통적으로 파리를 근거지로 택했다. 냉전시절 미국과 소련에 맞서 사실상 유일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나라라는 정치적 비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앞서 말한 환상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프랑스 뉴스는 한국언론에서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계도적 기능을 중시하는 한국언론의 '파리발' 기사는 프랑스 사회의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 즉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는 뉴스를 선별했고, 그것이 프랑스에 대한 환상을 더욱 부추기는 상승효과를 가져온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면 나 또한 그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프랑스 사회의 지나친 엘리트즘은 계급주의적 속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백인 프랑스인과 이민족 출신 프랑스인 사이에는 넘기 힘든 장벽이 있다. 엘리트에 의존하는 '디리지즘'(dirigisme)과 '볼롱타리즘'(volontarisme)은 때로는 오만한 독선으로 흐르기도 한다. 자기 것에 집착하는 편집증은 세계화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굳이 프랑스를 '한국의 거울'로 삼아 한가지 교훈을 얻었다면 그것은 이미 2천5백년 전 공자가 말했던 '화이부동'(和而不同)이 아닐까 싶다. 서로 섞여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프랑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